부평에서 별의 별 개성을 지닌 곳, 부평의 별 같이 빛나는 곳

부평별곳

운영가이드북 (공모 신청 전 참고자료)

문화도시 부평
Culture City BupyEong

너와 나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문화도시부평

부평구는 2016년부터 부평 음악·융합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해 온 결과, 2021년 1월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부평은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다양성과 문화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지역 선순환의 문화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란?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자체적으로 도시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살리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지정 제도(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를 수립하였습니다.

문화도시부평

부평구는 2016년부터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문화 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해 온 결과 2021년 춘천·강릉·김해·완주와 함께 제2차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다양성과 문화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지역 선순환의 문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도시 부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별곳으로 가는 길 체크리스트 008

부평별곳 사업소개 010

① 부평별곳 바로 알기
② 부평별곳 발자취
③ 1년의 부평별곳을 돌아보며

부평별곳 닮은 꼴 찾기 다른 지역 공간 지원사업 사례 028

전문가 한마디 048

우리 곁에 부평별곳 부평별곳 운영 공간 인터뷰 064

세무 관련 내용 원천세 신고 086

부평별곳으로 가는 길 체크리스트

부평별곳은 '부평에서 별의 별 개성을 지닌 곳, 부평의 별 같이 빛나는 곳'을 뜻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하면 여러분도 밤하늘 길을 안내하는 북극성처럼 문화예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삶이 예술이 되며,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부평별곳에 동참해보세요.

4
새로운 사람들과의
모임을
만들고 싶다.
5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다.
6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싶다.

부평별곳

부평별곳 사업소개

① 부평별곳 바로 알기
② 부평별곳 발자취
③ 1년의 부평별곳을 돌아보며

1 사업목적 및 방향성

부평별곳은‘부평에서 별의별 개성을 지닌 곳, 부평의 별 같이 빛나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카페나 서점, 공방처럼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공간에 다양한 문화예술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더하여 부평을 문화도시로써 발돋움하게 하는‘민간 문화공간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평구 안에서 건물을 임차(소유) 하여 이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별곳 운영자가 된다면, 시민이 즐길 수 있게 구성한 문화예술·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부평별곳은 세 가지 명확한 사업 목표를 가집니다. 문화생산 주체가 되는 것, 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공동체를 이루고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1. 문화생산 주체로써 전환

지금까지 부평에‘민간 공간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은 공연과 전시, 여러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소비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평별곳은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계획 단계부터 정산까지 사업의 전체 과정을

직접 기획·운영함으로써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계획하여 운영하고, 시민이 소비하던 지난 Top-down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현하는 Bottom-up 방식의 사업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에게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게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감과 협력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공간의 기능 확장

그동안 공연, 전시, 생활문화 교육은 전문시설에서만 누렸습니다. 그러나 부평별곳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카페나 서점 등 우리의 일상 안으로 불러옵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만 쓰던 공간에 문화와 예술을 더해 그 기능을 넓힐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은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를 누리게 됩니다.

부평별곳은 공간이 기존 형태에 맞는 목적으로만 운영되거나 몇 사람을 위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쓰이길 추구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 동네의 작은 아트센터나 예술회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평별곳 사업의 대상(공간)은 1~2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3년 차부터는 동네마다 사랑방 구실을 함으로써 주민이 취미와 정보를 나누고,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3. 공동체 구성과 활성화

부평별곳은 단순한'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부평별곳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공간 거점의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오랫동안 한 공간으로 쓰던 곳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시작하여,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과 동네 주민 사이에서 소비와 생산이 일어나고 나아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제든 그리고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사람들은 생활 속 여러 문제를 의논하고 육아와 교육, 취미, 문화 활동을 함께 하며 기회와 가능성을 나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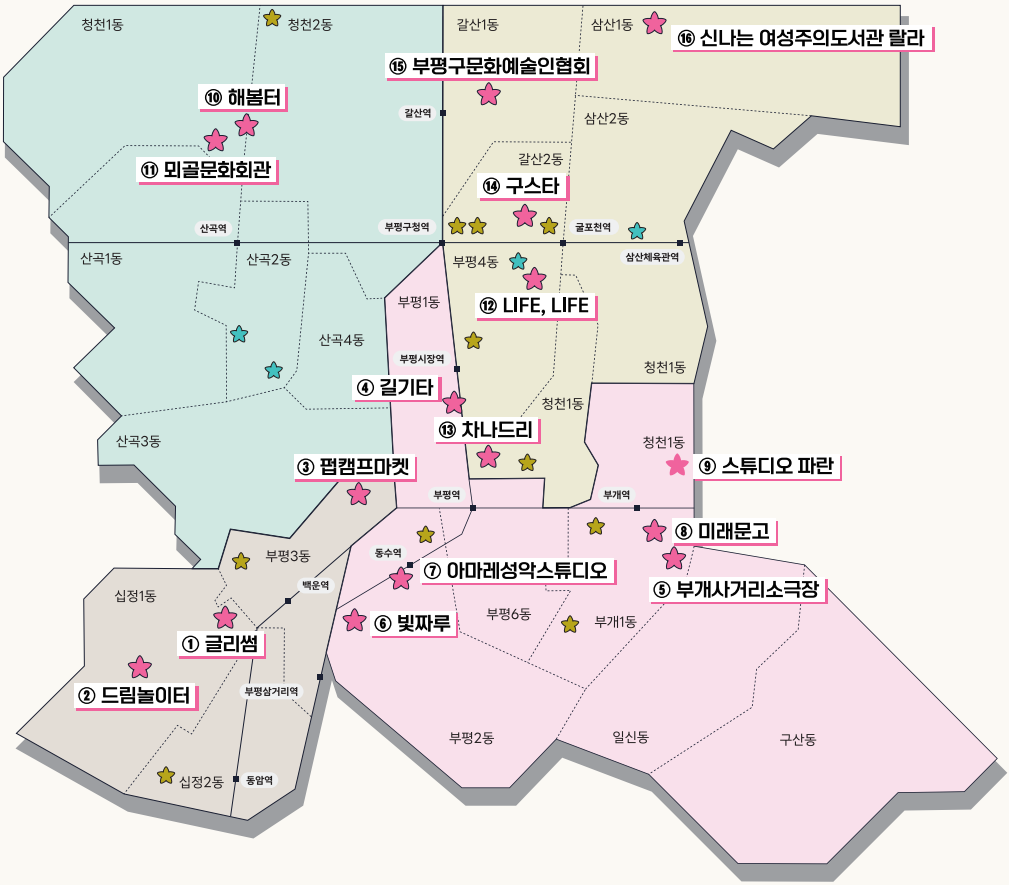
부평별곳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부평별곳, 문화도시조성사업'이 끝난 뒤에도 공동체 구성원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합니다.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만족한다면,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공동체 구성원은 주체적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부평이나 인천의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지원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그 동네만의 문화와 품격을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2 부평별곳 발자취

부평별곳 지도

- 2021년도 부평별곳 운영공간
- 2022년도 부평별곳 운영공간
- 2023년도 부평별곳 운영공간



2023년도
참여 공간 소개

① 글리썸 | 카페
부평구 이규보로 95번길 10 101호

③ 펍캠프마켓 | 펍, 라이브클럽
부평구 부평공원로 61-1

⑤ 부개사거리소극장 | 극장
부평구 경인로 1075 지하

⑦ 아마레성악스튜디오 | 연습실
부평구 경인로 872 4층

⑨ 스튜디오 파란 | 사진관
부평구 수변로 58 3층

⑪ 뫼골문화회관 | 문화시설
부평구 세월천로 82

⑬ 차나드리 | 카페
부평구 부평대로 20번길 18 3층

⑮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 사무, 창작공간
부평구 주부토로 236 U1센터 A동 402호

② 드림놀이터 | 교회
부평구 열우물로 119 3층

④ 길기타 | 기타공방
부평구 부평대로 51번길 26 4층

⑥ 빛짜루 | 화실, 공방
부평구 경인로 834번길 22 2층

⑧ 미래문고 | 서점
부평구 수변로 3 지하

⑩ 해봄터 | 개인작업실
부평구 마장로 409번길 4 3층

⑫ LIFE, LIFE | 독립서점, 카페
부평구 길주남로 46 2층

⑭ 구스타 | 카페
부평구 주부토로 150번길 24 1층

⑯ 신나는 여성주의도서관 랄라
| 도서관
부평구 후정동로 60 3F

1년의 부평별곳을 돌아보며

(운영자·참여자 소감)

1 글리썸 (2023)

운영자

오는 분마다 '너무 좋다!', '마을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었구나!' 라며 감탄하세요. 기대보다 높은 고퀄리티 수업 구성에 대한 칭찬과 놓친 수업들은 너무 아쉽다며,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생활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지만 언제든지 찾아와 취미나 간단한 여가, 재생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 마을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마을을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모인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2 드림놀이터 (2022·2023)

운영자

올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했어요. 연령과 계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고 확장시켰습니다.

그냥 오다가다 지나가면서 보긴 봤었는데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5분 거리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오다가다 인사하며 서로 알아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3 펍캠프마켓 (2021·2023)

운영자

이 지역에 남아있던 클럽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남고 싶어요. 부평공원과 캠프마켓을 다녀가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4 길기타 (2022·2023)

참여자

작업하는 공간은 어질러지기 쉬운데, 선생님께서 공방을 잘 꾸려주셔서 올 때마다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우쿨렐레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 손으로 직접 조율하고 연주가 되는 악기를 만들 수 있어서 무척 좋았어요. 만드는 동안 다양한 도구를 접해볼 수 있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집 밖에 잘 안 나오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 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5 부개사거리소극장 (2022·2023)

참여자

극장은 대학로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동네에 소극장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여기에서 연극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막막했거든요. 배우로서 경험도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부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하는 분들이 으쌰으쌰해서 서로 배우고, 느끼고 호흡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 빛짜루공방 (2022·2023)

운영자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공간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일정에 따라 빌려드립니다. 미술체험, 관심 분야, 배우고 싶은 것 등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저 혼자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해서 하고 싶어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미술을 배우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즐거웠어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새삼 깨달으며 제가 사는 마을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7 아마레성악스튜디오 (2022·2023)

참여자

공간에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오며 가며 언제든 들릴 수 있는 친숙한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게 집에서는 방음 문제도 있고 어렵잖아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피아노나 악기 등을 연주할 수 있는 방음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성악에 대한 큰 지식도 없고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장벽도 있었는데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테마에 맞춰서 감상해 보니 그 음악에 조금 더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음식이라는 것도 좋은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자주 먹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친구들과 함께 먹어보는 체험이 있어서 마음적으로도 리프레시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8 미래문고 (2021·2022·2023)

운영자

지금은 '부평별곳'하면 부평 지역에서 운영하는 문화사업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 문화사업에 참여는 못 하더라도 책도 보고 조금 더 가깝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문고들이 많이 사라지는 가운데 미래문고를 통해서 책도 접하게 되었지만, 교육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루는 장도 되었죠. 그래서 더 즐겁고 한번이라도 더 오게 되는 미래문고인 것 같아요.

참여자

9 스튜디오 파란 (2021·2022·2023)

운영자

부평별곳을 시작하기 이전보다 찾아오는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엔 어떤 결과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진 촬영만을 위해 오셨다면, 지금은 사진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의 방문이 늘고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사진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프로그램하면서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느낌들이 같이 나눠지기 때문에 되게 행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참여자

10 해봄터 (2023)

운영자

나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공간 해봄터. 마음속에서 막연하게 꿈꾸어 왔던 것에 곧바로 뛰어들긴 어렵잖아요. 여기 와서 한 번쯤 경험해 보고 마음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1 뫼골문화회관 (2022·2023)

운영자

작년에는 원적산이라는 큰 공원이 있어서 뫼골공원이 사람들에게 묻히는 경향이 있었어요. 부평별곳을 시작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원적산을 가기전 뫼골공원에 뫼골문화회관이라는 재미있는 곳이 있다는 걸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청년층의 유입도 많아질 것이고, 청년들과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12 라이프라이프 (2023)

운영자

'삶과 삶 중간의 삶'이라는 슬로건을 지향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재밌고 즐겁다는 반응이 많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바쁘게 일상생활 하다가도 저희 공간에 와서 잠깐 쉴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쉼의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13 차나드리 (2023)

운영자

국악을 공연장이 아닌 생활문화 공간으로 불러와 일반인들이 국악을 조금 더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평별곳을 통해 신선한 경험을 했다고 평가해 주셔서 더 나은 문화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14 구스타 (2022·2023)

운영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산책을 하면서 한번 보게 됐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근사한 취미를 수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참여자

15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2022·2023)

운영자

좋은 실력과 재능을 가졌지만 나누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니 오히려 전문 예술가 못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문화도시 부평이 되기 위해 이웃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저변을 넓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도 하고 참여하는 분들과 수다도 떨고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6 신나는 여성주의도서관 랄라 (2021·2022·2023)

운영자

'여러 사람이 함께 요리도 하고 같이 먹어보는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때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실생활에 계속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들이 인상 깊습니다. 여럿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하니 서로 배운 것도 기억에 잘 남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랄라는 한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곳이에요.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협력하며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랄라에 들어오면 일단 너무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항상 환대받는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참여자

부평별곳

부평별곳 닮은 꼴 찾기

다른 지역 공간 지원사업 사례

부평별곳 닮은 꼴 찾기 다른 지역 공간 지원사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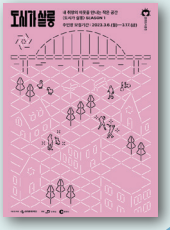
부평별곳은 지역의 개성 있는 공간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을 중심으로 모여 부평에서 풍요로운 지역문화 활동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부평별곳과 비슷한 유형의 공간지원 사업을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의 사례에서 만나보세요. 부평별곳의 지향점이 더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부평별곳 닮은 꼴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탑은 꼴 1

인천광역시 :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임승관 인천연수문화예술센터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기획 취지

천개의 문화오아시스는 생활문화에 관한 관심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에 조성사업계획을 수립, 2018년에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매년 50여 개의 문화오아시스 공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생활문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생활문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권역별 문화오아시스 조성을 통해 자발적인 커뮤니티와 공간 운영 모델을 만들고, 천개의 문화오아시스를 지속할 수 있는 자립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등 인천지역 문화자원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 시도와 확장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개의 문화오아시스의 특징

2018년부터 6년 동안 단체장의 교체에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온 사업으로 인천 생활문화 정책의 대표성을 갖게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인천 오아시

스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민간 공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의 문화·유휴공간 등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공유, 개방하도록 하드웨어(소규모 수선)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지원하고, 발굴한 문화공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컨설팅 지원, 문화예술 중심의 지역커뮤니티(공동체, 생활문화동아리)와 협력사업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다른 특징으로는 지원 대상 유형에 생활문화 공간과 전문 예술공간 외 상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지원하며, 운영단체를 통해 공간 운영에 대한 자문과 관리를 지원받습니다. 민간 갤러리, 북카페, 음악클럽, 서점 등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며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방향의 지원 대상자로 개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권역별 대표자 대면 회의로 오아시스의 성장과 지속을 위한 정책을 모아 제안하여 실제로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협치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실효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실행하며 다른 공간과의 협력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사업 기간 중 운영 컨설팅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공간 지원을 위해 매니저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매니저는 동네 곳곳에 자생하는 꽃들로 날아가 수정을 돕는 벌처럼 개별 공간 운영자들과 만나고 애로사항 해결을 돕습니다. 매년 신규 공간과 누적 공간이 늘면서 공간들 사이의 정보교류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한 매니저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오아시스의 가장 큰 성과

음악클럽 <버텀라인>

그동안 500 곳이 넘는 공간,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원사업으로 해오던 프로그램의 수준과 질을 높이는 성과를 경험했습니다. 3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연속해서 3년을 오아시스로 지속하는 공간은 30%가 조금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변화의 정도는 크지 않고 지속성에 대한 보장도 부족합니다.

단, 나와 같은 공간이 많다는 일종의 소속감과 연대의 가능성, 생활문화공간들이 모여 정책 파트너로 대표성을 갖춰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오아시스 사업기간 동안 각자

도생을 잠시 극복하고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공간 운영자가 내 주변에 있어 함께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지속과 성장에 대한 희망을 상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두드러진 네트워크 형성 지역은 강화도입니다. 오아시스 OB와 함께 유대를 통한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지역서점 <책방시점>

향후 문화오아시스 사업에 대한 개선 및 제안

문화자치를 앞두고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치 역량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율적 논의나 합의 구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으로 양방향 지원정책 시도가 필요합니다. 생활문화인들의 증가가 단순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따른 정서적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공간 지원이 예술적 기술 전수나 항상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문이나 운영지원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론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전문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생활문화진흥조례'에 있는 생활문화위원회 가동이 필요합니다. 지원센터는 오래 걸리고 어려워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생활문화 안정화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닮은 꼴 2

경기도 | '모든 공간 31'

최진호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모든 공간 31' 사업소개

'모든 공간 31'은 경기도 내의 민간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경기도 6개 도시의 협력기관(고양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남양주 문화의 집, 동두천 문화원, 양평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88개 민간문화공간을 공모 선정하여 공간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역(경기문화재단)과 기초지자체(시군 단위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집), 지역의 민간문화공간이 협업하여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사업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문화공간에서는 자발적 커뮤니티 구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공간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광역인 경기문화

재단은 연구용역과 전체 사업관리 1인 크리에이터를 배정하여 공간 영상 촬영을 통한 홍보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간 지원 배경

'모든 공간 31'에 대한 고민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기관이 폐쇄된 상황에도 민간 문화공간이 지역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지역단위의 문화활동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단위 문화 활동은 문화에 있어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상 속 15분 문화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근거하여 공공 문화공간의 활성화와 동시에 민간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 31' 운영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알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역차원에서 처음 시작하는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 본 사업을 알리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에서의 문화 거점이 되기 위한 내용과 예산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며 민간문화공간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사업 과정 과정마다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민간문화공간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각 민간문화공간 간의 공간 공유, 사업의 확장은 물론 같은 고민을 하며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 의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 31'에서 각 기초지자체(시군)의 역할

'모든 공간 31'은 각 지역의 주관 기관 담당자들의 열정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원, 문화의집 등이 자체 사업으로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공간의 컨설팅, 모니터링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문화공간이 사업에서 겪는 어려운 지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민간문화 공간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트워크의 경우는 저희 경기문화재단 같은 광역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기초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사업이어서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양주에서는 매개자 2명을 채용해서 민간문화공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여, 향후 사업이 지속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별 공간 네트워크 방식

동두천	월 1회 운영자들끼리 모여 네트워킹 자리 마련 예정, 온라인 까페 운영중, 12월 초 성과공유회 진행 예정
남양주	여유협탁, 여유자기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문화공간끼리 서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음
고양	11월 말 생활문화네트워크 파티 중 한 꼭지로 민간문화공간 운영자 네트워킹 진행 예정, 생활문화 체험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구상하고 있음
광명	컨설팅 전후에 워크숍 진행 중이며, 다양한 시민제안사업과 함께하여 연말 플리마켓 진행 예정
양평	주민 멤버십을 하나의 풀로 형성해나가며 홍보할 계획,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량강화 워크숍과 성과공유회 워크숍 총 2회를 계획하고 있음
용인	공간운영자들의 공통 고민지점을 바탕으로 잘 된 민간문화공간의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모든 공간 31' 사업의 성과 및 지향점

현재 사업 진행 중이기에 사업의 성과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이른감이 있어 남양주 워크숍에서 나온 '올해 과정에 대한 소감과 의견' 몇 가지 공유 드립니다.

공모사업 하면서 늘 다른 단체들이 궁금했고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는 다양한 만남을 가져서 좋았고 즐거웠다.

독자적인 활동만 하다가 다양성을 접하고, 다른 공간의 홍보, 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을 배우고 접할 수 있어 좋다. 함께 하는 과정이 고독감을 덜어 주기도 했다.

새롭게 다가온 것이 많다. 시작 전에 참여공간들이 함께한 워크숍이 특히 좋았고, 일반 컨설팅보다 촘촘했고 아이디어나 자극이 많이 되었다.

올해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공간이나 운영 내용을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관계와 협력이 쌓여가는 것이 가끔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마을 안에서도 따뜻한 교류나 관계가 어려웠는데 올해 사업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행복하다.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오늘 같은 모임 자체가 너무 좋다.

사업에 대한 이해, 우리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이나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조금 생겼다. 해보니 더 많은 공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19년 동안 동네에 살았지만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올해 이사업을 운영하면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의 친구, 멘토가 생겨가고 있기에 너무 좋다. 이제는 나의 동지가 20명이 넘는다.

컨설팅에서의 제안으로 주말을 공간을 개방해서 청소년들도 드나들고 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안이나 시도들이 많은 자극이 되었다.

참여자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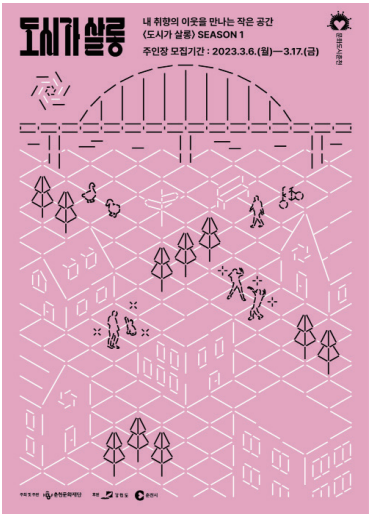
지역의 민간공간에서는 주로 공간의 정체성을 찾은 것, 함께하거나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생긴 것,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동료의식 등이 확장 된 것을 성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에서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속되면 분명 경기도 만의 예산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므로, 지역 주관 기관의 예산 확보 및 매칭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문화재단에서는 23년 사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24년 자체 예산을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지역의 주관기관들이 함께 사업하는 일은 즐겁기도 하고 각 기관의 차이로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과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이 서로 상충하기도 합니다. 또하 민간공간에서 사업의 정산 및 처리 절차가 낯설어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들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고생할 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지속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닮은 꼴 3

강원도 춘천 | 도시가 살롱

남세은 춘천문화재단 시민문화팀 대리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 24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 9개의 도시(예비문화도시 제외)에서 부평별곳과 유사한 형태의 공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공간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부평별곳의 방향성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공간지원사업 사례조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① 민간의 개인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역민과의 교류와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③ 공간의 기능이 사업을 통해 확장되길 원한다.
④ 공간 이용자의 연령대에 제한이 없다.

그 결과 신규모임과의 커뮤니티에 집중하는 특징이 돋보인 춘천의 '도시가 살롱'이라는 공간지원사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문화도시 부평과 같이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3년 연속 '도시가 살롱'이라

는 공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살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춘천문화재단 시민문화팀 남세은 대리님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도시가 살롱 홈페이지

도시가 살롱을 소개합니다.

도시가 살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공간 주인장이 기획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카페, 책방, 식당, 공방 등 도시 곳곳의 다양한 소규모 상업 공간의 주인장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특정 시간대에 관심 있는 이야기, 주제로 시민들과 만나 대화, 요리, 작업, 책 읽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합니다.

도시가 살롱 탄생 배경에는 '매개공간'과 '심리방역'이 있습니다. 도시 내 유

휴공간과 야외공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네 상점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100개의 동네 상점을 발굴하고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면 커다란 면이 됩니다. 이렇게 원도심을 하나의 공간으로 볼 수 있게 만들자는 전략에서 도시가 살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살롱은 코로나가 터진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지만 만남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웃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다는 말처럼 정보를 교류하고, 이웃의 안녕을 확인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는 '심리방역' 즉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라도 안전하게 만나자는 취지가 작은 공간을 주목하면서 도시가 살롱은 진행되었습니다.

도시가 살롱의 자랑거리

도시가 살롱의 자랑거리는 춘천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주인장'입니다.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가지만 예술가, 기획자의 재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공간지원사업이 낯설어 주춤하셨지만 '해보니 되네!'를 말씀하시며 이제는 도시가 살롱이 아닌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하십니다.

'내 공간이 가장 중요했는데, 내 공간 너머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도시가 살롱을 통해 공간을 찾는 이웃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공간의 주인장들도 도시가 살롱에 들어와 경험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만 이 좋은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졸업'이라는 문화까지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장 모임'을 통해 서로의 공간을 탐방하고, 안부와 근황을 확인합니다. 졸업한 주인장도 함께하다 보니 인원이 늘어서 '주인장 소모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상업 공간을 넘어 문화의 가치가 담긴 공간을 운영하고 싶은 소망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도시가 살롱의 모임원들과 지역 내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할 수 있을지 고민하십니다. 홍보, 브랜딩,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주제로 회의하며 도시가 살롱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직접 디자인한 '현판'을 배포하기도 하고, 도시가 살롱 커뮤니티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빙북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가살롱 <아카이빙 북>

도시가 살롱의 공간들

많은 공간들을 알리고 싶은데 가장 처음 '졸업'이라는 문화를 화두에 올려주신 '화양연화 커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도시가 살롱을 졸업하시고, 도시가 살롱을 통해 만난 화양연화 패밀리 분들과 꾸준히 모임을 지속하면서 즐겁게 공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춘천에 오시면 꼭 '화양연화 커피'에 들러주세요. 멋진 DJ 주인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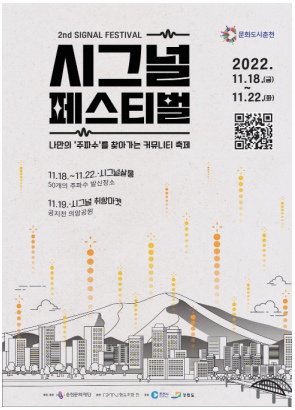
화양연화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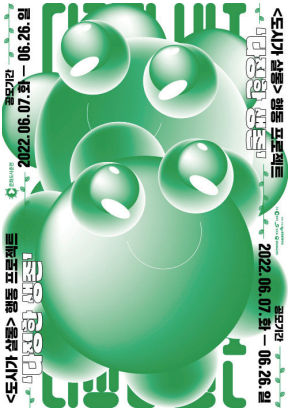
앞으로의 도시가 살롱

도시가 살롱의 지속을 위해 올해 시민문화활동을 기반으로 한 <안녕지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예술경영학회에서 <도시가 살롱>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추진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3년간 5억의 예산으로 158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이렇게 진행된 연구를 토대로 도시가 살롱의 중기계획을 위해 내년에는 고도화된 연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부 지원사업 형태의 변화도 논의 중입니다.

도시가 살롱과 연계된 문화도시 사업

'우리 커뮤니티 활동에서 멈추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취지의 행동 프로젝트 <다정한 생존>, 춘천 도심을 새로운 시선에서 여행할 수 있는 '살롱 데이' 프로그램 <오늘은 여행자 살롱>, '주인장'들의 도시문화 커뮤니티 축제 <시그널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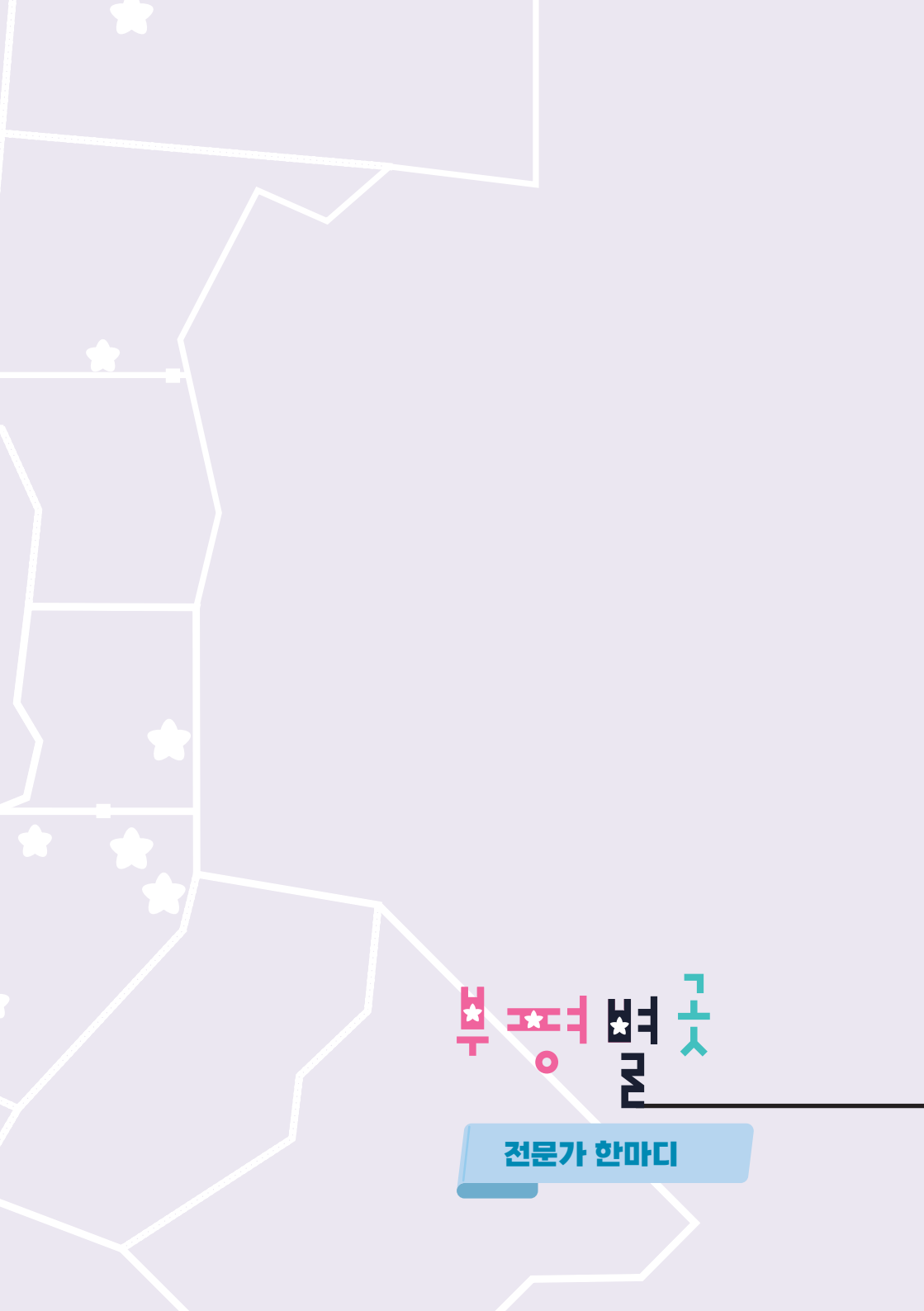


도시가 살롱과 연계된 문화도시사업

담당자로서의 한마디

도시가 살롱 지원신청서에 주인장분이 작성해 주신 “누군가의 일터가 다른 이에게 쉼터로……”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공간지원사업에 참 어울리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 살롱에서는 주인장분들이 강사의 역할보다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양방향 소통으로 모임을 이끌어주시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클래스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서를 쓸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처음하는 분들은 누구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이기에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품이 들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공간지원사업이지만 이웃들과 만나 함께 웃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아! 이거 뭐지!”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간지원사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미숙할지라도, 다 회차 운영을 통해 좋은 시간을 켜켜이 쌓아 가면 좋겠습니다.


부평법
전문가 한마디

전문가 한마디

공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일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차장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인천의 문화공간 지원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지원,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생활문화공간에 대한 지원, 지역의 문화적 활동을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공간지원에 대한 고민과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고민이 앞으로 사업을 만들어 나갈 부평문화재단과 또 부평의 문화공간 운영 지원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문화공간이란?

좋은 문화공간을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입니다. 많은 문화공간이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는 경우를 보면서 '좋은 문화공간이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는 공간이 좋은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래된 문화공간이 무조건 좋은 문화공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좋은 문화공간이 오래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인천문화재단이나 부평문화재단과 같은 지원기관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간을 지원 한다는 것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독창성, 공간의 개방, 상시적인 공간의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조건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간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공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장점을 해당 공간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지원사업의 조건에 맞추다 보면 각 문화공간이 갖는 가치와 장점이 흐려지고 지속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잘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공간 운영자의 역량이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장점을 잘 살려내는 문화공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문화공간들도 있습니다. 문화공간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문화공간이 자신만의 가치와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원사업의 시작

각 문화공간의 가치와 방향을 찾는 작업은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문화공간 운영자는 기존에 해온 사업의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경험이 갖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험이 왜 지금 다시금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해당 문화공간이 갖고 있었던 가치와 장점을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뜨개질이 좋아서 모인 공간에서 꾸준히 뜨개질을 해왔던 작품들을 기부, 전시, 판매 등을 통해 지역에 선보이는 활동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좋아서 했던 활동이지만 이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 사회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경험은 우리 공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활동을 돕는 활동가와 함께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간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 시민들의 기존 활동을 촉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문화공간의 새로운 사업 시도라는 관점에 너무 매몰되면 기존 활동에서 가지고 있던 장점이 사라지고, 시민들의 활동 의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볼 겁니다!” 보다는 “우리가 늘 하던 활동에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볼까요?”와 같이 일상적이고 가볍게 제안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때 문화공간 운영자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 정도 목표는 달성해 보겠습니다.” 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잘해 왔던 것에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정도로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시도를 조금씩 꾸준히 이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용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평별곳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부평별곳 사업은 모범 사례로 불릴 정도로 잘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부터 ‘별곳’(별처럼 빛나는, 별의별 개성을 가진 곳)으로 각 공간이 갖는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사업 설계와 간편한 정산, 그리고 컨설팅과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의 지원은 다른 문화재단들과 다른 지역의 문화공간, 문화주체들이 벤치마킹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3년을 맞이하는 부평별곳 사업 역시 문화공간 지원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좋은 공간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평별곳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법을 고민하고 사업을 통해 배출된 역량 있는 문화공간들을 연계할 다음 단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킹과 사업고도화를 지원하는 방안 역시 필요합니다. 지원사업의 이러한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부평구문화재단에서 ESG사업과 문화예술을 연계하는 방안, 기업체와 협업하는 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시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제안과 협업을 통해서 부평별곳 사업과 같은 문화공간 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인천문화재단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차장

2004년 2월에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예술경영 전공)을 졸업했고,
2004년 12월에 인천문화재단 창립 멤버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인천 문화예술현장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인천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가 생기기를 항상 꿈꾸고 있다. 현재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에서 근무 중이다.
2004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졸업 (예술경영 전공)
(논문「공연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아트마켓 육성 방안 연구」)

개인 공간에 녹아든 공공성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 생활문화팀장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익도 창출해야 하고, 공간 이용자를 향한 서비스도 개발해야 하고, 공간 정비와 수리에도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직접적인 수입 창출이나, 홍보나 판매 같은 경제적 효과와 연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의 공간을 공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지원사업은 공간 운영자가 '공공을 위한 목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과정과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간지원사업이 개인의 공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을 개방하고, 이용자들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공익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의도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나 공간지기가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서, 공공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다문화 가정의 주민 등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공간 운영자의 공적 역할 찾기

공적 자금이 제공되어도 개인의 공간에 공적 목표를 강하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간지원사업에서 '공공성'만을 추구한다면 개인 공간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자가 공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공간

에 공적 역할을 일정 부분 부여했을 때, 공간 브랜딩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소개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홍보를 통해 판매나 모객으로도 이어진다면 운영자의 부담은 낮아질 것입니다. 또 공간이 지닌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컨설팅 등으로 도움을 준다면 공간의 기능을 변형하거나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화생활이 공적인 활동으로 환원되는 과정을 경험해보거나, 공간에 지역의 색깔을 담아 지역의 주요한 공간이 된다거나, 사업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 줘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자 스스로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지원사업의 효과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공공, 공간과 지역이 호혜적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성 학습하기

1. 사례답사

운영자의 내발적이고 자발적인 '공적 역할 찾기'를 모든 지원사업 참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적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활동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적 영역에서의 문화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성을 학습할 수 있게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부평별곳과 형태나 내용이 비슷한 공모지원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취지, 목표와 목적을 확인하고, 공적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수행하는지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부평에서 만든 사례를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 3년차 지원을 받은 공간 운영자들이 새내기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해 보는 것입니다. 공간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과의 관계, 이용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계되고 변화되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사례를 나누고 연대하다 보면 추후 지원이 없어도 부평별곳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과 이용자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하는 이용자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 간의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개인의 활동이 확장될 수도 있고, 공간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적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을 공적 영역으로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는지 인지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서점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주변 서점들과 연대해서 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축제를 만들어내면서 영역을 스스로 확장했습니다. 공간의 기능에 다양한 관계와의 커뮤니티를 접목해서 발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얻어진 공간의 객관화와 아이디어로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

으로 자리매김하고,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개인의 공간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 큰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공적 활동과 개인의 목표 설정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개인의 목표 없이 공적 역할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느슨한 연대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한 것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원사업으로 10명과 관계를 맺어 보는 겁니다. 공간 운영자, 동호회 회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만나면서 지역을 분석하고 원하는 공간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공간 리빙랩을 해보는 겁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된 공간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욕구도 확인하고 지역민과 함께 실험해 보면서,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즉, 공간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으로 기존의 공간에 문화적인 영역을 접목하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공간에 새롭게 부여한 기능이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피고,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미래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겁니다.
공간이 모든 연령을 아우르거나 지역의 모든 욕구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운영자 본인의 욕구를 수용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취하는 여러

실험을 통해 개인의 활동과 공적 활동이 그 경계를 넘나들게 되면서 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 봅니다.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 생활문화팀장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 그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문화로운 삶을 기획하는 문화행정가이자 기획자입니다.
문화예술계에 입문하여, 공연기획부터 문화가있는날과 생활문화 등
정책사업을 총괄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경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성과 비즈니스 모델

정윤호 협동조합 문화놀이터 뜻 대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공간활용에 대한 마인드)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각자의 공간을 왜 운영하게 되었고,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은지, 내 공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가 너무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매번 끊임없이 하고 계셨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날 수 있는 소비시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작하게 됐었던 이유가 처음에는 그냥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었지만 문화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졌고, 오시는 손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나 '이 공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지역에 누군가의 제안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문화예술의 이해와 깊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정이나 공간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이 이뤄지면 확장성을 갖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확장성을 위한 브랜딩과 타겟설정

요즘 20~30대 친구들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산꼭대기에 있어도 찾아갑니다. 그 공간이 주는 매력이 있어서 불편하여도 찾아갑니다. 부여의 경우는 쌀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 있고. 남해 지역에는 돌창고를 개조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고립을 하고 있는 춘천이나 이런 데에도 북스테이 같은 곳들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과 공간의 매력을 드러낸 공간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브랜딩과 더불어서 학습의 과정으로 새로운 공간들을 탐방해 보고 공간 대표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공간이 주는 매력이 있어서 요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시설이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공간이 어떻게 하면 사적 영역에서도 돈도 벌고, 공적 영역에서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찾아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요자의 타깃 설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에는 그 대상이 없는데 그 대상을 유입시키겠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간의 분석과 지역의 정보도 명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위한 역량교육 필요 (펠로우 시스템)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만 하다 보면 지속 가능성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유지에 대한 지출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임대한 공간으로 월세가 나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표자 역량 강화의 교육에 있어서 자립을 위한 비즈니스 교육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

해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고,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사회공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부터 정립이 돼야 합니다. 3년 차 됐으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님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펠로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참여자들과의 라포 형성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다회성 프로그램은 참여자들과 관계망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포 형성이 잘 되고, 참여자들 스스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체 동아리를 만드는 사례가 만들어진 예도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돈을 내고 쓰겠다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서 지속 가능한 자발적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관계망 데이터 베이스와 관계의 적정선

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유료와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 관심과 반응을 성과지표 정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관계망 중에서 공간에 대한 적절한 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지면 지역 상인분들의 관심과 경계가 생기는데 적절한 선에 대한 경계면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치적인 부분을 확보

하여 내 공간의 매력과 공간 운영을 위한 수익적인 부분까지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사업의 방향성, 다양성과 자율성

부평별곳은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량강화를 통해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성과 함께 예산 활용에 있어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부평별곳 사례를 가지고 지원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부평별곳이 가진 방향과 또 다양성과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해 가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지속 가능합니다.

정윤호 협동조합 문화놀이터 뜻 대표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대표, 신중년커뮤니티센터 영종라운지 센터장,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부평별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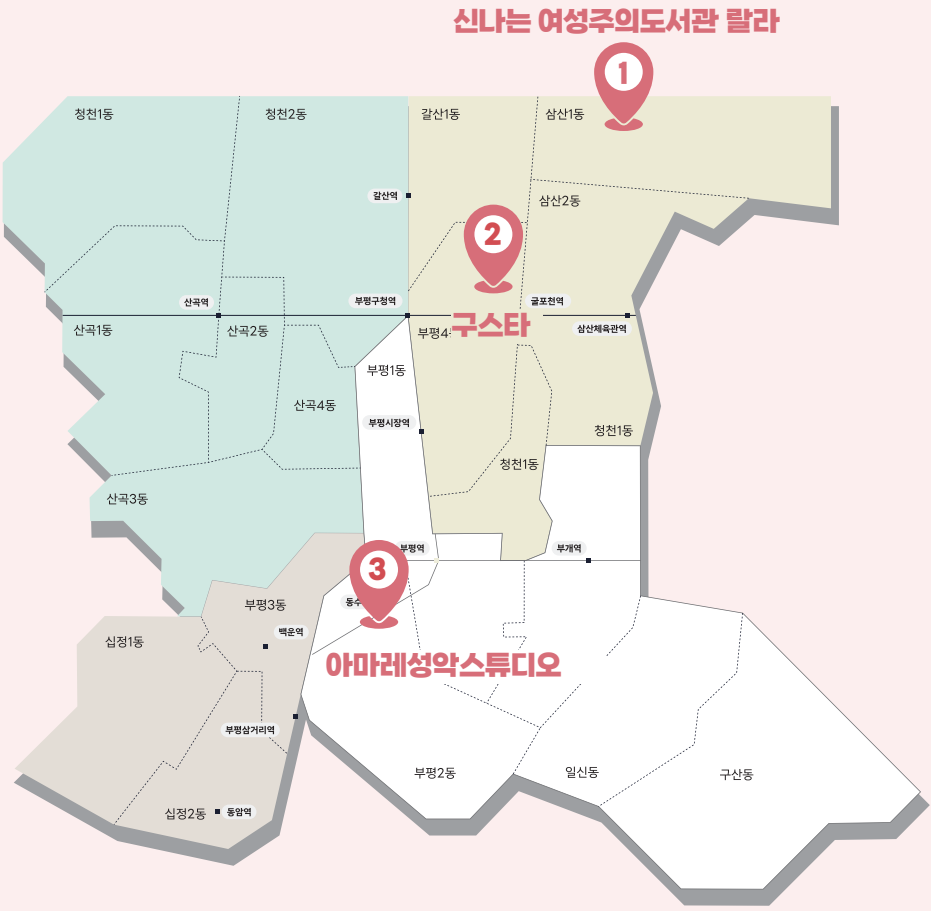
우리 곁에 부평별곳

부평별곳 운영 공간 인터뷰

우리 곁에 부평별곳

부평별곳 운영 공간 인터뷰

부평별곳은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로 반짝이며 진화 중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마주하는 변화는 공간, 지역, 참여자, 가치관, 목표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운영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일상 속 부평별곳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느껴보세요.



공간 1

부평별곳으로 맺은 인연에서 든든한 동료로 발전한

'신나는 여성주의도서관 랄라'

대표자 : 황보화

부평별곳 선정 및 연차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차 운영 중
주소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60 3층
2023년 부평별곳 프로그램	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페미니스트
공간 소개 영상	

신나는 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신나는 여성주의도서관 랄라(이하 랄라)는 여성주의를 주제로한 도서관입니다. 여성주의라는 명확한 정체성과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 책만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 특강, 전시,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참여한 분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라고 하면 여성, 성평등 만을 강조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면한 문제인 기후위기, 돌봄, 일상과 삶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고 그 살아가는 방식인 문화와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부평별곳과 함께한 3년

부평별곳은 랄라의 고민이 다 들어 있는 사업이었어요. 랄라도 도서관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가는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에서 가장 고민인 부분은 바로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재료비 크게는 프로그램 비용 등이 드는데 공간을 기반으로 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인 부평별곳은 랄라의 방향성과 딱 맞는 사업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예산 사용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랄라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평별곳 사업에 참여하게되면 예산적인 지원 외에도 컨설팅과 네트워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컨설팅의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간을 방

문해서 공간의 고민을 듣고 다양한 사례와 제안을 해주는 활동인데 랄라의 경우는 도서관 분야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후원구조를 만드는 일이 앞으로 랄라에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랄라 쓸모 대잔치'라는 플리마켓형 후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물품을 후원 및 기부하고 그것을 다른 분들이 구매하는 후원구조를 만들면서 자원순환 활동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매년 공유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평의 다양한 공간이 하고 있는 활동을 함께 돌아보고 소통하며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부평별곳 참여자들이 운영위원으로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뿐 아니라 사는 이야기도 나누며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평별곳이 만들어 낸 변화

랄라가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해 졌습니다. 부평별곳과 함께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랄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하고 랄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문화활동과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지금은 랄라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네 분, 그중 한 분은 상근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공간을 만나고 공간을 알아가고 공간에 애정을 갖고 이제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매우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평별곳 인터뷰 심의도 제가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상근활동가 분이 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랄라 공간에 많은 애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간을 혼자서 꾸려갈 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상근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아이템, 프로그램 제안, 홍보문건 제작 등 함께 공간을 운영하다보니 더 풍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즐겁습니다.

부평별곳 사업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부평별곳 사업은 정말 별에 별곳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떤 공간은 되고 어떤 공간은 안되고 하는 지원사업 마다의 규정들이 있는데 부평별곳은 어떤 공간이던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로 소통하고자 하는 공간이라면 지원해주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았으니 어떤 것을 해야한다는 방식보다 각 공간의 고민과 공간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공간의 방향성과 공간이 가야할 길도 함께 고민해 주기 때문에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랄라도 올해 3년 차를 맞이하지만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은 사업이고 고민과 걱정을 하기 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꺼내놓고 도전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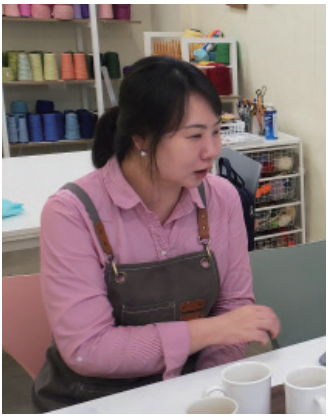
폭넓게 사랑받는 사업이 되기를

부평별곳 사업을 통해 랄라가 많이 알려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회가 되어서 랄라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업입니다. 부평별곳 사업이 저희같은 공간 운영자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업이지만 아직은 3년 차인 사업이라 시민들에게는 아직 낯선 사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도 더 알려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부평별곳의 사업에 기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면 사업에 참여하는 공간 운영자들도 더욱 힘내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랄라도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 2

카페에서 문화공간으로

'구스타'



대표자 : 김진희

부평별곳 선정 및 연차	2022년, 2023년 2년 차 운영 중
주소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50번길 24 1층
2023년 부평별곳 프로그램	예술로 잇다
공간 소개 영상	

부평별곳과의 인연

2022년에 부평별곳으로 공모사업을 처음 시도해봤습니다. 문화재단 사이트를 수시로 들어가서 재단사업을 보긴 하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느날 현수막이 구청 앞에 걸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출퇴근길에 구청 앞을 지나다 신호에 딱 서는데 옆에 그 사업이 있길래 처음 보는 사업이었고 마침 그 날이 마감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지요. 올해 2년 차 부평별곳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프로그램 소개

구스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인의 사유 공간보다는 공유되는 공공의 공간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전시 공간, 체험 공간 등을 포함하는 공간으로써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

기도 하고, 느슨하지만 시간을 담는 공간입니다. 서로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만나 배워보고 느껴보기도 합니다.
카페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 터프팅 수업과 함께 베이킹이랑 쿠킹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터프팅하기 힘드셔서 연령에 맞춘 수업을 구성하고 청년, 어린이 등 전 세대가 다 할 수 있게끔 편차를 두어 맞춤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평별곳 2년 차 진행과정에서의 성장

1년 차에는 거의 원데이 수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기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다면, 2년 차에는 1년 차 오셨던 분이 그대로 참여하시기도 해서 좀 심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 차에 커피만 마시러 왔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2년 차에는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중에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만든 오란다를 삼성화재 쪽에 홍보를 한 번 했었는데 납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친구가 부평별곳 사업과 관련해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서 그 그림으로 연말에 문화재단에 마우스패드와 안경 클리너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 터프팅 수업에 직접 도안을 짜줘서 그걸로 일반 시민들이 수업을 하였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원데이 수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며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부평별곳 사업을 하면서 처음 받은 컨설팅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만 교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수정하고 다듬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카페와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공간의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더 맞는 공간으로 쓰이는 과정을 통해 공간의 역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부평별곳 사업 이후, 지역,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킹 부분은 부평 전역에서 문의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간을 대관하거나, 소규모 스터디, 전시장

으로 찾아주십니다. 특히 새롭게 만난 분들이 있는데 성인발달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22년도 처음 별곳 사업을 하면서 성인발달장애인들과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23년도는 발달장애인들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아니더라도 산책하다가 커피 드시러 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러 오기도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못 느끼게끔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평별곳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간의 네트워킹은 전에는 다른 팀이 뭘 하는지 작년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올해는 권역별 지도가 나와서 우리 동네에 누가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콜라보를 통해 서로의 공간에서 수업을 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같이 전시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해서 작품이 나왔는데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재단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그런 기회를 열어준다면 더 좋겠습니다.

예비 부평별곳 운영자에게 한마디

부평별곳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정도 좋고, 정산방식도 너무 좋습니다. 내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해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새로운 거였으면 합니다. 상상하고 꿈꾸는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잘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공간, 문화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평별곳에 바라는 점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평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용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지원사업들이나,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들이 서로 비슷하고, 청년에 치우친 사업이 많았습니다. 부평별곳에 대한 사업을 한곳에 모아줘서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공간 3

음악가들의 공간에서 지역 애호가들의 사랑방이 된

'아마레성악스튜디오'

운영자 : 김윤규 | 대표자 : 강효진

부평별곳 선정 및 연차	2022년, 2023년 2년 차 운영 중
주소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2 4층
2023년 부평별곳 프로그램	제2회 클래식 이탈리아 여행
공간 소개 영상	

부평별곳과의 인연

2022년에 부평별곳으로 공모사업을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류에 담아내는 게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조건부(기획안 보완 후 재제출)로 선정되어 컨설팅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평별곳의 지향점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떨어졌으면 몰랐을 서류작성 요령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나, 단체가 지닌 성격을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방식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평별곳 덕분에 다른 공모사업도 진행하게 되어서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간과 활동

이 공간에서는 성악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해서 그곳에서 구입한 소품이나 현지어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니 참여자들이 좀 더 생생하고 알차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문화를 접목해서 이탈리아 샌드위치도 만들어보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음악을 몰랐던 분들도 편안하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고, 노래 좋아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가는 게 보입니다. 직접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굉장히 집중도 잘하고,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체험들이 굉장히 소중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저희가 오페라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평별곳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오페라단의 팬이 되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관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

니라 프로그램 홍보와 모객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대안학교 학생들,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저희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아마레성악스튜디오를 통해 구성된 네트워크에 부평별곳을 통해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결합 되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공간의 비전

거점 공간 지원 사업에도 신청했는데 (인터뷰 후 사업에 선정됨) 선정된다면 공간을 새롭게 구획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연습실을 줄이고, 공연장을 늘려서 다양한 공연도 하고, 지역에서 발표회나

공유회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하고, 다채로운 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확장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아마레 성악스튜디오는 새로운 분들과 만나기 위해 홀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비 부평별곳 운영자에게 한마디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참여자가 좋아할 만한 것을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통 오페라를 하고 싶지만, 관객들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평별곳 사업 자체가 시민들이 가볍게 보고 즐기고, 그래서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부평별곳을 통해 지역에 알리고, 처음엔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참여자와 같이 수준을 높여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페라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는 작은 공간에서 하는 오페라들이 많습니다. 부평별곳을 통해 집 근처에서도 가볍게 볼 수 있는 클래식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평별곳에 바라는 점

부평별곳을 통해 지역에 공간을 알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부평별곳'의 위치나 프로그램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평별곳 전체의 위치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나 모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평별곡

세무 관련 내용 (원천세 신고)

세무 관련 내용 (원천세 신고)

01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의무

☆ 원천세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이 비용을 받을 사람의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강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은 따로 모아서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세는 지급하는 비용을 합산했을 때 한 달에 125,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같은 사람에게 100,000원씩 4번을 지급했다면 합산 금액에 400,000원으로 125,000원이 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60,000원씩 2번 지급했거나, 한 번에 125,000원만 지급했다면 합산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1명에게 100,000원을 지급했든, 5명에게 100,000원씩 총 500,000원을 지급했든 125,000원을 넘기지 않으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은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은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지급확인서, 신분증, 연락처, 통장사본 등)

☆ 세금신고를 할 때는 국세 신고와 지방세 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는 홈텍스, 지방세는 위텍스를 사용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02 세금은 왜? 소수점까지 있나요?

☆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내가 사는 지방에 내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내기 때문에 소수점이 생깁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	합계
사업소득	3%	0.3%	3.3%
기타소득	8%	0.8%	8.8%

03 매번 헷갈리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사업소득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선수가 경기에 출전해 수당 및 임금을 받는 것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이 프로선수는 축구를 하는 일이 본인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일반 직장인이 아마추어 축구대회에 참가해서 상금을 받는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본래 직업이 있고, 축구 경기 상금은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기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강이나 체험에 강사를 초빙한 경우입니다. 강사가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강사를 초빙한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하는 단체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협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앞서 '지속적이고 반복적' 조건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강사가 정기적으로 강의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게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등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회적인 강의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강사가 단체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는 전체 소득의 60%가량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투여된 비용으로 예를들어 15만원의 강사비를 받았다면 기타소득 신고시 9만원이 경비로 전체 수입은 6만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비가 인정받을수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비인정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04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23년까지는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했었지만 2024년부터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세금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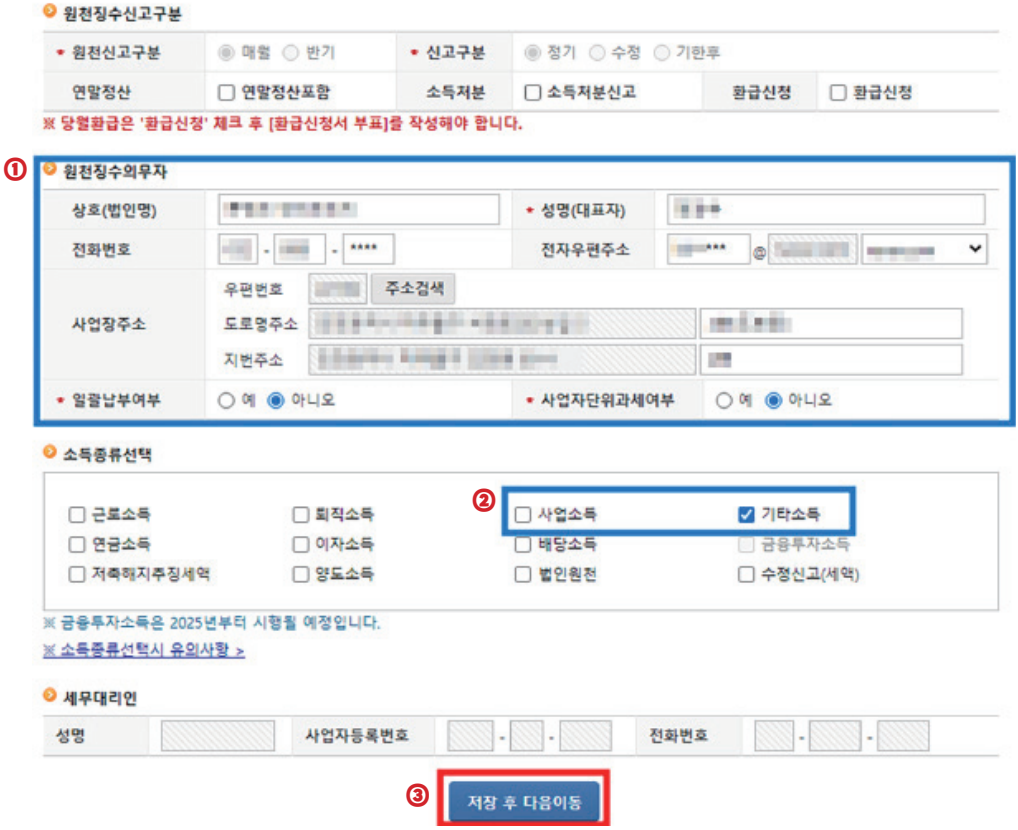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서 원천세 찾기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금신고 → ③원천세 → ④일반신고 → ⑤정기신고 순으로 클릭

2. (일반신고, 정기신고)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하기

① 기본정보기입 → ②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

3. 원천소득의무자, 소득종류 확인하기 ※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은 별도 기재



①원청징수의무자 사항 기재 → ②소득종류 선택 → ③저장 클릭

4. 세액 기입하기 * 총지급액=세전금액

※ 소득세=총지급액의 3%(사업소득) 또는 8%(기타소득) 기입
※ 0.3%와 0.8%는 위택스(지방세)에서 신고 후 납부

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액 기입

5. 저장 후 이동

환급세액 조정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12)전월미환급세액	(13)기환급 신청세액	(14)차감잔액(12-13)
0 원	0 원	0 원

› 당월 발생 환급 세액 —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

(15)일반환급	(16)신탁재산(금융회사 등)	(17)그 밖의 환급세액
0 원	0 원	금융회사 등 : 0 원 합 병 등 : 0 원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하려면, '차월이월 승계명세서 작성' 버튼을 누르세요.

환급조정 및 신청세액

(18)조정대상환급세액(14+15+16+17)	(19)당월 조정환급 세액 합계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0 원	0 원	0 원

※ 환급신청하려면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환급신청구분"에 체크 후 환급신청서부표를 작성합니다.

(21)환급신청액	0 원

① 이전 | 저장 후 다음이동

①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6.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대부분 해당 없음)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의 종류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소득에 따라 다음 화면이 구성되며, 소득별 부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세액을 각 소득종류별로 기재하되, 법인세에는 법인세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분, 수탁회사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합니다.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는 매월 지급년월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하여 매월 제출합니다.
③ 비거주자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 근로 소득이 포함됩니다.
④ 법인원천소득에는 일반이자, 신탁재산분, 수탁회사징수분,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국내 원천소득이 포함됩니다.

※ 소득의 종류 선택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소득의 종류 선택

☐ 거주자 : 이자소득
☐ 거주자 : 배당소득
☐ 거주자 : 금융투자소득
☐ 거주자 : 해지추징
☐ 거주자 : 근로소득(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 비거주자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 근로 소득
☐ 법인원천 : 일반이자, 신탁재산분, 수탁회사징수분, 비영업대금의 이익 / 국내원천소득

※ 근로소득(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항목은 외국법인에서 온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관련법령은 소득세법 156조의7 과 소득세법 시행령 207조의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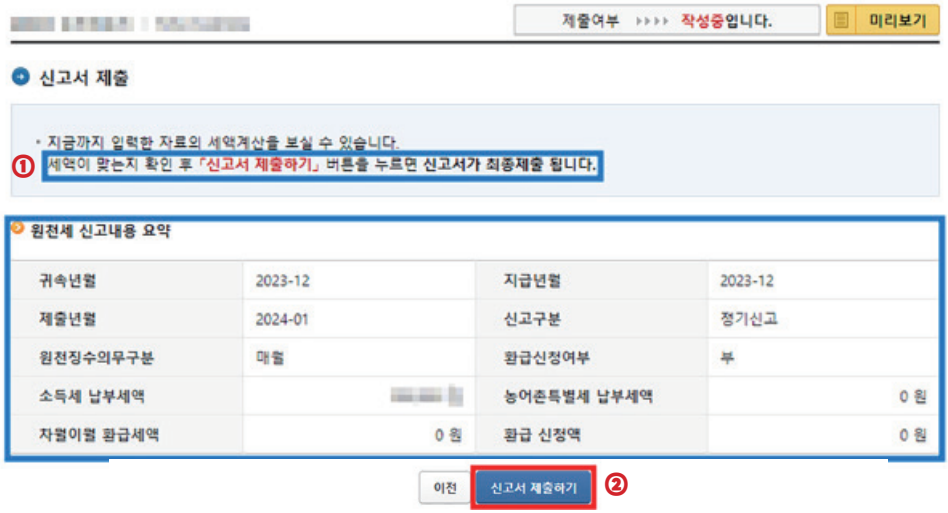
① 이전 | 저장 후 다음이동

①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7. 신고서 부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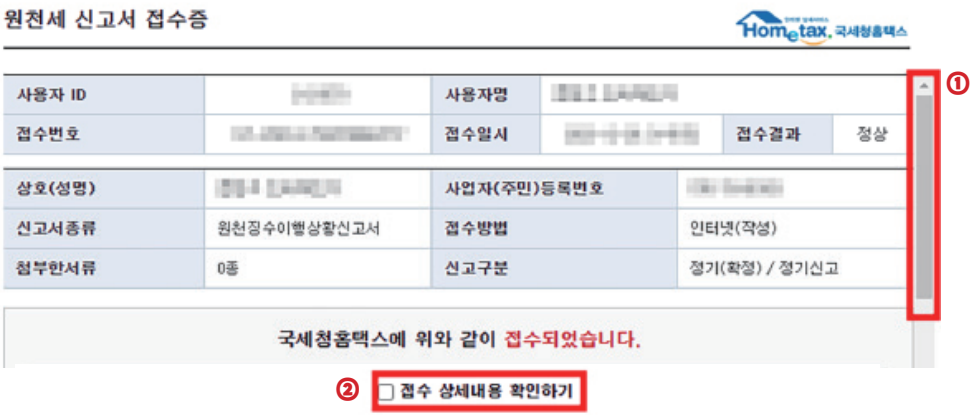
①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8. 신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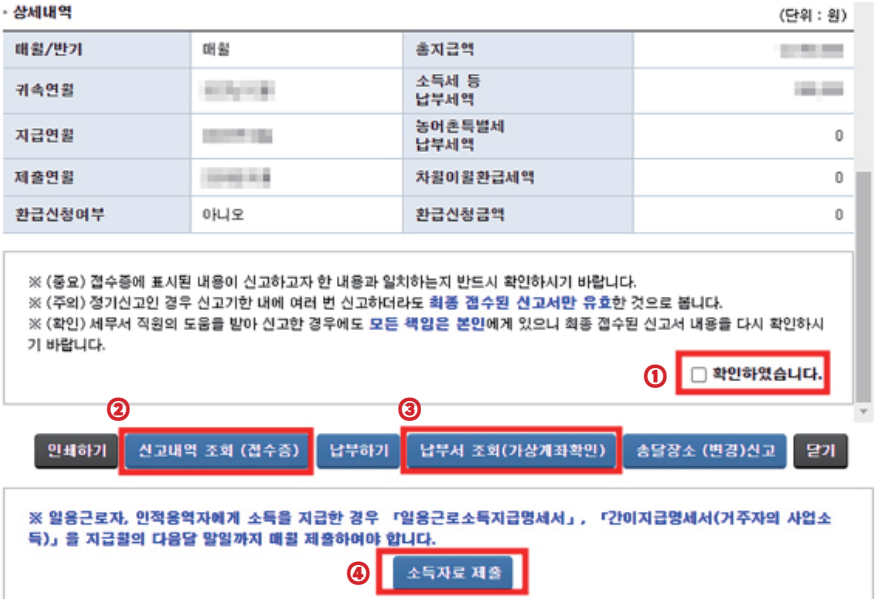
① 원천세 신고내용 요약 내용확인 후 → ②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9. 신고서 접수증



① 마우스로 스크롤을 내려야 상세 내역이 보임 → ②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10. 최종확인



①최종 확인 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 ②신고내역 조회 확인 → ③납부서 조회 확인 → ④ 소득자료 제출 확인

11. 접수증 납부서 확인 / 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및 납부하기

①신고내역 조회하기 → ②접수번호(신고서보기) 클릭

위택스로 지방소득세신고

1.위택스(https://www.wetax.go.kr) 로그인 후 신고하기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찾기

①위택스 로그인 → ②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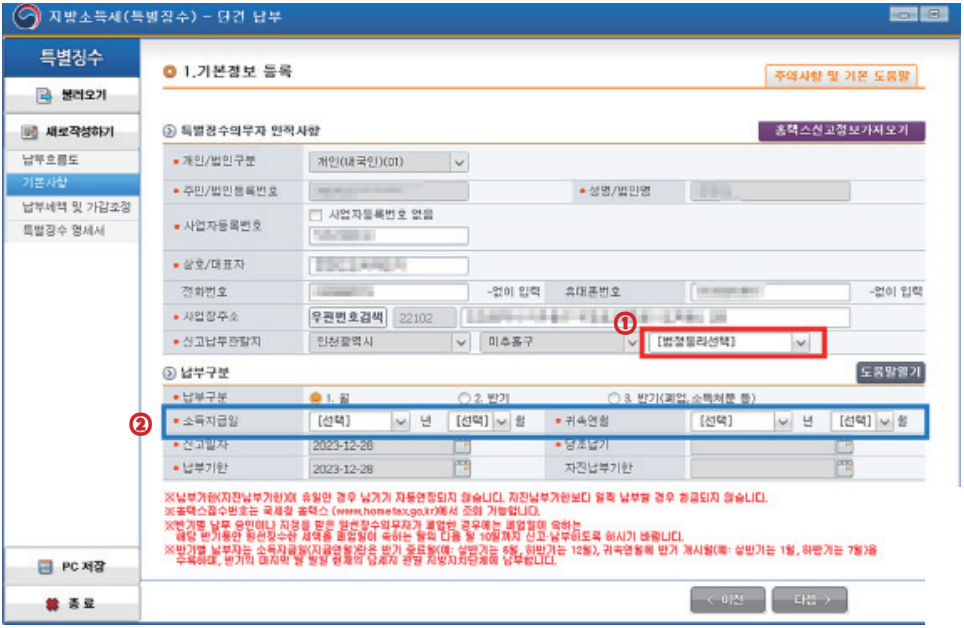
2. 납부 유형 확인

①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 페이지 확인 → ②단건납부 클릭

3. 납부흐름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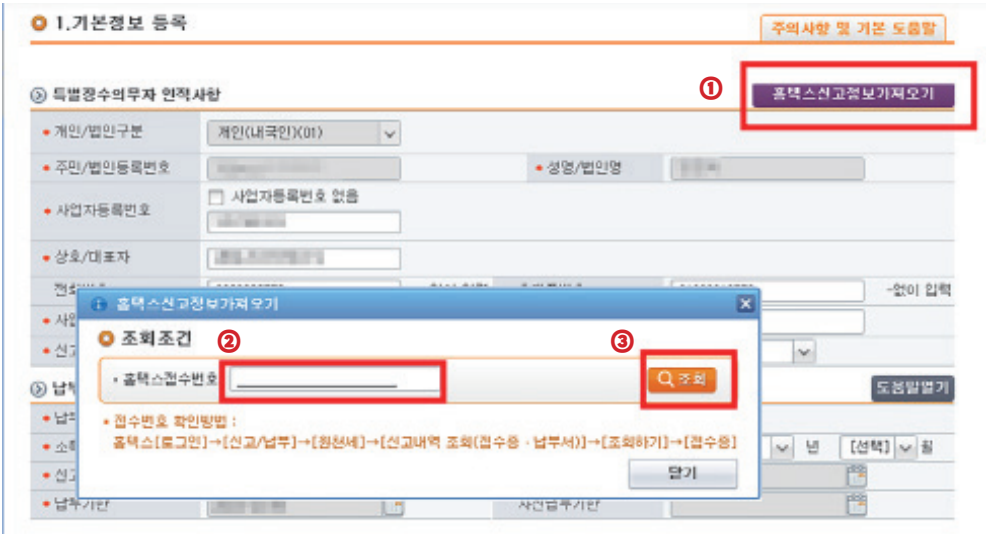
① 납부흐름도 확인 후 다음 클릭

4. 기본정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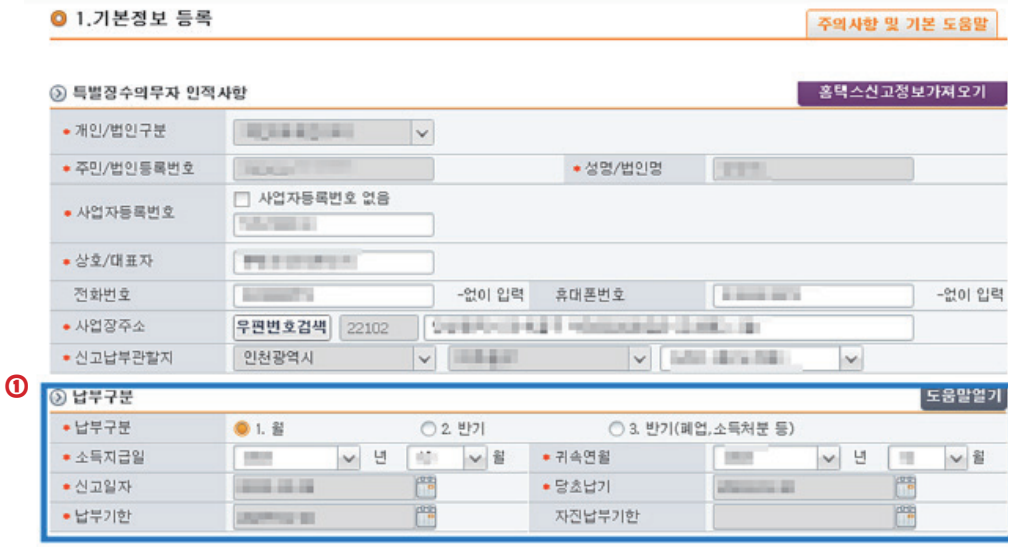
① 기본정보 확인 → ② 소득지급일 및 귀속연월 선택

5. 홈택스 신고 정보 가져오기



①홈택스신고정보 가져오기 클릭 → ②홈텍스접수번호 → ③조회

6. 홈택스 신고 정보 조회 후 납부구분 자동 기입



①납부구분 체크 후 확인

7. 납부세액 확인 (자동기입)

2.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납부세액 도움말열기

항목	인원	과세표준	특별징수세액
이자소득	0	0	0
배당소득	0	0	0
사업소득	0	0	0
근로소득	0	0	0
연금소득	0	0	0
기타소득	6	[illegible]	[illegible]

가감세액(조정액) 내역입력 [열기]

※ 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내역입력[열기]>를 클릭하여 가감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열기

과세표준 합계	[illegible]	특별징수세액 합계	[illegible]
가산세	0	차감후 환급잔액 (환급부족액)	0
금월 납부할 세액	[illegible]		
비고			

※ 원단위 절사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항목별 지방소득세액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한글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입력하십시요.

①

①납부세액 확인 후 다음 클릭

< 이전 | 다음 >

8. 명세서 제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별지 제42호의2서식)

특별징수 의무자 ※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은 전택사항입니다.

• 성명/법인명	[illegible]	• 주민/법인등록번호	[illegible]
• 상호/대표자	[illegible]	• 사업자등록번호	[illegible] -없이 입력
• 사업장주소	우편번호검색 [illegible]		

납부세액

과세표준 합계	[illegible]	특별징수세액 합계	[illegible]
가산세	0	가감조정금액(차감액)	0
금월 납부할 세액	[illegible]	차감후 환급잔액 (환급부족액)	0

특별징수 명세서 ※ 동일한 소득종류에 중복된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추가 삭제

※ 특별징수 명세서 내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징수명세서서식 내려받기 특별징수명세서 올리기

①명세서 확인 후 제출

< 이전 ① 제출

9. 접수내용 확인

접수내용

신고자	[illegible]	접수일자	[illegible]
전자납부번호	[illegible]		
접수결과	정상		
신고세목	특별징수	귀속연도	[illegible]
주민/법인등록번호	[illegible]		
성명/법인명	[illegible]	신고세액	[illegible]

①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납부서출력 | 즉시납부 | 신고결과서출력 | 명세서조회 | 가상계좌 | 신고취소 | 확인

①접수내용 확인 후 납입하기

부평에 별의 별 개성을 지닌 곳, 부평에 별 같이 빛나는 곳

부평별곳

운영가이드북 (공모 신청 전 참고자료)

발 행 인 |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편 집 인 | 황유경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총　　괄 | 김유정 시민팀 팀장
기　　획 | 이준구 시민팀 팀원
조사수행 | 콘텐츠 인터체인지
인　　쇄 | SEC글로벌

발 행 일 | 2023년 12월
발 행 처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